

# 건축사는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FEATURE

### To the Young Man in Architecture

by Kim, Hee Choon

건축은 그 시대 그 지역의 인문 사회 자연적 여건들의 응결체이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넓이가 커서 다루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건축사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 옛 3인의 건축가의 건축교육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로 한다. 이것들은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보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여러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교육 제도개선 등이 요청되고 있는 이 때 그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또한 우리 건축사들의 올바른 입장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기회라고도 생각한다.

#### I. Vitruvius (로마인 A. D. 1 C 경)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의 Book I. Chapter I에서 건축사의 교육(The Education of Architect)의 주요내용

- 1) 건축사는 여러가지 학문과 교양에 대한 지식을 구비해야 한다. 즉 Theory(이론)와 Practice(실기)를 겸비해야 한다.
- 2) 건축사는 건축분야의 양면성에 모두 정통하여야 된다. 이 양면성이라 함은 의미를 부여받는 대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원리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 3) 건축사는 천부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배움이 필요하다.
- 4) 건축사는 학문적이고 회화에 숙달하며 기하학적 역시에 능통하고 철학자에 귀를 기울일줄 알아야 한다. 또한 음악을 이해하고 의술도 알아야 하며 법률가의 견해나 천공이론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 문장력 : 생각을 글로써 남겨 오래 기억하게 한다.
- 회화 : 의도하는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
- 기하학 : 건축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 역사 : 장식에 대한 채용동기를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건축에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 철학 : 마음을 넓게 하고 성실과 청렴을 위함이다.
- 자연과학 : 철학과 같이 기본적인

필요 부분이다.

- 음악 : 수학이론과 같이 음악이론은 비례, 조화 등을 배우게 된다.
  - 의학 : 쾌적한 환경을 알게 된다.
  - 천문학 : 천공이론을 알게 된다.
- 5) 방대한 양의 교육을 위해 어릴때부터 단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 6) 전문적인 최고의 지식보다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기술과 학문의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 이상에서 볼 때 교육과정 등 상세한 언급은 없으나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즉 어릴때 부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관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교육받아야 하며 일부분에 대한 상세한 지식보다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지식은 이론과 실재가 겸비되어야 한다.

#### II. Frank Lloyd Wright (미국인 1869 ~1959)

“The Future of Architecture” 중 To The Young Man in Architecture의 주요내용

- 1) 그 시대에 있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건축물을 잊어 버려라.
- 2) 여러분이 어머니나 친구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큼이나 건축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건축을 생계수단으로 택하지 말라.
- 3) 공학의 설명자로서가 아닌 건축학교는 경계하라.
- 4) 현대적 건물을 만드는 기구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장으로 가라. 아니면 구조 또는 시공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건물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전적으로 구조 또는 시공분야에 머물러 있어야.
- 5) 여러분을 기쁘게 하거나 혹은 불쾌하게 하는 어떤 느낌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습관을 가져라.
- 6) 어느 것도 이름답거나 추하다고 당연시하지 말며 모든 건물을 분해하고 모든 특징을 찾아라. 아름다운 것과 호기심을 끄는 것의 구별을 배워라.
- 7)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라. 그것은 마음속에서 종합하는 자세로 이끌어 갈 것이다.
- 8) 나의 옛 스승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요소에 의해 생각하라” 이는 첫번째 원칙으로서 전체를 가장 단순한 요소들에

의해 각부분들로 분해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하므로서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정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것들과 여러분이 서로 혼돈하거나 혼란시키지 않을 수 있게 한다.

9) 쉽게 전직해 버리는 미국식 사고의 독소를 버려라. 미숙한 상태에서 실무로 뛰어드는 것은 목전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건축사로서의 생존권마저 팔아먹거나 혹은 건축사인 척하면서 죽어버리게 된다.

10)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건축실무에 들어가기 앞서 갖는 준비기간으로서의 10년간은 조금이라도 뛰어나고자 하는 건축사에게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11) 그리하여 처음으로 건물을 짓게 되었을 때에는 되도록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의사라면 자기의 실수를 덮어버릴 수도 있지만 건축사는 그 실수를 변명할 여지가 없다.

12) 성당을 짓는 것만큼이나 닭장을 짓는 일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라. 공사비의 문제를 떠나 프로젝트의 크기는 예술성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특성의 질에 있다. 그 특성은 작은 건물에서 클 수도 있고 큰 건물에서 작을 수도 있다.

13) 초보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건축현상에 참가하지 말라. 지금까지 그 어느 현상설계도 건축에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세상에 내어 놓은 적이 없다. 심사위원들 자체가 평균치를 골라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들이 하는 맨 처음 일이라는 것은 설계안들을 죽 훑어 보고 그중 가장 나은 것과 가장 못한 것을 버림으로서 평균치로서 평균에 또 평균을 내는 것이다. 그 어떤 현상설계라도 진짜 결과는 평균의 평균에 의한 평균일 뿐이다.

14) 계획된 설계안을 사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자기를 대신하여 아이디어를 찾는데 대해 보수를 지불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신용없는 고객임이 입증될 것이다.

15)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계시대에 살아 갈 운명을 타고 났다고 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축에 있어서 일이 사람을 찾아야지 사람이 일을 찾아 나서서는 안된다. 예술에서는 일과 사람이 친구가 되어야 하며 서로 사고 팔고 할 수는 없다.

1) 건축사는 여러가지 학문과 교양에 대한 지식을 구비해야 한다. 즉, Theory(이론)와 Practice(실기)를 겸비해야 한다.

2) 건축사는 건축분야의 양면성에 모두 정통하여야 된다. 이 양면성이라 함은 의미를 부여받는 대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응것은 과학적 원리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3) 건축사는 천부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배움이 필요하다.

4) 건축사는 학문적이고 회화에 숙달하며 기하학적 역사에 능통하고 철학자에 귀를 기울일줄 알아야 한다. 또한 음악을 이해하고 의술도 알아야 하며 법률가의 견해나 천공이론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Vitruvius

이상 모든 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6) 결과품을 존경하라. 그것은 인간에 대한 진실한 경의의 표시이다. 것처럼 높은 가치의 것이 지금처럼 절실하게 요망되는 때는 찾기 어렵다.

미국 초기현대건축의 거장 Wright는 건축사가 되는 길은 멀고 힘든 수련과 근본적으로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현상설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재미(滋味) 있는 것이라 보겠다.

### III. Walter Gropius (독일인 1883~1969)

“Scope of Architecture” 중에서 건축교육에 관한 그의 견해의 일부이다. 그는 먼저 다음과 같이 전제하고 있다. “모든 건강한 인간은 형태를 상상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창조적 능력의 존재가 아니라 그 창조적 능력을 발표하는 열쇠를 찾아내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창조적 태도와 생활에 있어서의 균형을 위한 개별적 준비에 목적을 둔 훌륭한 교육은 개인을 단순한 사실의 정보나 서적에 의한 지식을 넘어 직접 개인의 경험과 행동으로 이끌어갈 것이 틀림없다.

1) 건축사는 건축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허다한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및 예술적 문제들을 통합해야 하는 조정가로서 통찰력과 전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건축사는 산업화의 영향을 인정해야 하고 사회 및 과학 발전에 의하여 조성되는 새로운 과제들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2) 건축공부를 하는 때에는 지식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

건축사의 훈련은 부분적인 것보다 집중적이어야 한다. 건축공부를 하는 전 기간에 걸쳐 사고의 명백성을 지니고

건축을 인식하겠끔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성형식을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태도와 개념의 독립을 거쳐서만 그의 기초적 개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항상 인간이 초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공동사회의 생활에 관련있는 문제들을 생각해야 한다.

여하한 종류의 디자인을 하더라도 의자나 건물이나 지역계획이나 전도시계획이나 그들 공간구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상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이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목표하는 모든 일에 대한 공통적 이상을 그 구현의 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고도로 강조해야

○초보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건축현상에 참가하지 말라. 지금까지 그 어느 현상설계도 건축에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세상에 내어 놓은 적이 없다. 심사위원들 자체가 평균치를 골라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들이 하는 맨 처음 일이라는 것은 설계안들을 죽 훑어보고 그 중 가장 나은 것과 가장 못한 것을 버림으로서 평균치로서 평균에 또 평균을 내는 것이다. 그 어떤 현상설계라도 진짜 결과는 평균의 평균에 의한 평균일 뿐이다.

○계획된 설계안을 사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자기를 대신하여 아이디어를 찾는데 대해 보수를 지불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신용없는 고객임이 입증될 것이다.

Frank Lloyd Wright

한다. 그 결과 모든 산물은 유기적 전체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환경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 3) 삼원적 개념은 기본적 건축의 훈련이다. plastic arts (조형예술의) 모든 분야에 있어 시각표현의 흥미를 자극시키는 방법으로서 거리를 파악하고 인간의 척도를 포착하게 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구성상의 효율적인 의미에서 방법의 질적 및 외관의 조화를 동시에 갖게하고 삼원적 공간을 조직하기 위한 본능적 확실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 4) 지식은 오로지 개인적 경험에 의하여서만 활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현장실습은 수년간의 학술적 훈련이 끝난후 하나의 분리된 경험으로서 참가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교육과정 자체의 완전한 부분이어야 한다.
- 5) 처음에 기초적 디자인 및 작업장과 결부된 실습이 필요하다. 이것은 재료와 연장으로 수행되어 삼원적 실습으로 발전시켜 Construction과 건물의 Elements를 알려 주어야 한다. 동시에 실제문제와 연결되는 디자인 과정은 공동사회의 생활을 개선하는 사회적 목표에 대한 Group의 모든 활동상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6) 초기에 현장경험을 쌓도록 한다. 이

현장경험이란 용어는 사무실에서의 작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주임이나 감독의 조수로서 현장에서 직접 실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장경험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또한 건축산업부문과도 친분을 갖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7) 두가지가 다 직접적으로 상호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Construction 부분도 Design 부분과 동일하게 알아야 한다.

Design과 Construction의 문제는 그 건물을 위한 대지 및 기타 필요 요건에 관련하여 실제조건과 잘 맞아야 한다. 이들은 공동사회의 문제를 전제하고 경제적 요인들을 검토하면서 접근되어야 한다.

8) 수련중에는 타인과의 공동작업의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관계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반을 구성하여 작업하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이것은 개념 및 계획집행 그리고 건축산업에 관련된 허다한 개개인들의 조정자가 되는 그들의 중대한 임무에 대비하게 만들 것이다. 팀 워크의 성격은 침략적인 묘기의 Design 보다는 훌륭한 조정된 건축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9) 역사연구는 위협과 모방을 피하기 위하여 건축학과 학생들의 첫해 보디도 세번째 해에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보다 성숙한 학생으로 하여금 과거의 종교, 과거의 사회 구조 및 과거의 생산수단에서 결과되어 존재하는 여러가지 예에서 분명한 것을 찾아내고 또한 과거의 걸작품의 기원을 분석하고 과거의 건축적 개념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0) 건축학과 Design계의 교수들은 건축의 학술적 이론적인 면을 갖추고 또한 충분한 설계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겨우 학술훈련을 끝낸 젊은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는 경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넓은 경험을 가진 교수만이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자극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선의 교육방법은 자극력에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애쓰게 될 것이다.

건축과 공학의 모든 교수는 개인적 실습을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것만이 그의 풍부한 연구심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없이는 학생들도 연구심이 메마르게 되고 교수들도 “권위적인 존재”로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11) 보다 작은 규모의 건축학교가 큰 규모의 학교보다 더 능률적이다. 건축학교에서 가장 귀중한 무형체인 “적극적인 분위기”는 모든 활동상황에 있어 교수단과 학생들의 상호협조와 공동참가에서 결과되는 것이다. 이결은 것 대규모 학교에서는 쉽사리 상실될 것이다.

12) 교수의 수업 능률은 매 교수당 학생의 수에 좌우된다. 건축사로서의 훈련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재능과 개발에 적응하는 조건에 대하여 학생들을 돕기 위한 개별적인 지도를 필요로 한다. 과도한 부담을 지닌 교수는 그의 학생 전부를 지도할 수는 없다. 교수매인당 학생의 바람직한 수는 12명으로 부터 최고 16명이어야 한다.

이상 Groupius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건축교육에 있어서는 그 창조적 요인을 개발시키는데 두고 있으며 계획의 탐구가 조사보다는 오히려 창조적 건축사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끝으로 우리의 잠재력이 있는 건축사들은 Observation으로 부터 Discovery로 그리고 Invention으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Contemporary Scene을 직관적으로 그러나 올바르게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